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2025년 1월 30일(금) 조간부터
취급하여 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
매체는 1월 29일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2026년도 원/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

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원/달러 시장 선도은행(FX Leading Bank, 이하 “선도은행”)으로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, 하나은행(가나다 순)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하였다.

선도은행 제도는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'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, 재무건전성,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/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하여, 선정된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*을 최대 60%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.

*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부담금(은행 10bp) 부과

아울러,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1.9(금) 발표한 「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·자본 종합 로드맵」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,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*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,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* 외국인간 원화 거래·보유(예금)·조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(가칭, 역외 원화결제망)을 신규 구축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

문의처 : 한국은행 외환시장팀 백봉현 팀장(02-759-5967), 김성기 과장
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도종록 과장(044-215-4730), 이용준 사무관
공보관 : Tel (02) 759-4016, 4028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□ 기본 요건

- ① 재무건전성(BIS 총자본비율 8% 이상) 및 신용도(A- 이상) 양호
- ② 최근 3년간 당국으로부터 외국환업무 관련 중징계이상 제재 無
- ③ 평가대상기간 중 원/달러 현물환시장 및 스왑시장 각각에서 전체 거래량 대비 2.0% 이상의 거래 실적이 있을 것

□ 평가 기준

- ①원/달러 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(15%), ②원/달러 현물환 호가거래 실적(45%), ③원/달러 외환스왑 거래실적(40%)을 가중평균
 - 거래가 체결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*하여 각각 평가

* 한국시간 09시~18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1, 18시~2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2, 22시~익일02시에 체결된 거래는 가중치의 6분의 3을 적용

원화·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방법

은행별 총점_i = ∑(항목별 거래실적^j × 가중치^j)

항목	가중치	산식
현물환 양방향 거래실적	15%	$\frac{(Min[매수액_i, 매도액_i] - 조정값_i) \times 2}{매수액_i + 매도액_i}$
현물환 호가거래 실적	45%	$\frac{(\text{호가매수액}_i + \text{호가매도액}_i) - \text{조정값}_i \times 2}{(\text{총호가매수액} + \text{총호가매도액})}$
외환스왑 거래실적	40%	$\frac{(\text{매수액}_i \times \text{만기가중치}) + (\text{매도액}_i \times \text{만기가중치})}{\text{총매수액} + \text{총매도액}}$, 만기가중치 = 일수x365/91

※ 다만,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시장의 가격·깊이·유동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래를 반복하는 등 외국환거래 질서를 저해한 은행은 제외 가능

※ 선도은행 선정시 호가 거래실적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%까지 감면